

沈從文的 鄉土意識 探索

구경모*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農村生活을 통한 鄉土意識 形成
 - III. 都市環境을 통한 鄉土意識 追求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1930年代의 中國은 政治·經濟·社會 등 각 분야에서 混亂과 對立의 양상이 지속되면서 思想的으로도 各流派의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때문에 문학도 역시 이 시대의 제반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그 시대의 문학의 특성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소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학적 특성이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知識人의 時代的 苦悶과 葛藤, 都市 下層民의 生活, 農民의 生活 등으로 題材의 다원화를 촉진시켰다.

中國의 現代文學은 당시의 封建的 時代 狀況에 대한 批判的 認識으로부터 初期의 新文學運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文學의 藝術性을 강조하는 作家의 작품보다는 당시 時代狀況에 걸맞은 革新思想이 내포되어 있는 文學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胡秋原, 蘇汶, 巴金, 郭沫若, 周作人, 曹禹, 沈從文 등의 初期 創造社와 新月社의 구성원들이 주장하였던 藝術을 위한 藝術의 文學에 대하여 우리는 흠시할 수가 없다. 그들의 文學主張은 대부분 藝術을 위한 藝術의 色彩를 띄고 있어 藝術派로 불려진다. 그들은 藝術을 手段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文學家는 社會的·道德的인 效用을 위해서 창작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단지 反功

*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 교수

利와 文藝無目的의 각도에서, 쏘과 美의 추구를 통해 자아표현을 하는 것만이 예술의 핵심이라 보았다.¹⁾ 이와 관련하여 당시 중국에서는 시대의 변천과 발전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 농촌을 배경으로 향하인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沈從文 역시 이 시기에 農村의 現實과 ‘鄉下人’²⁾의 삶을 제재로 창작 활동을 한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³⁾

특히 沈從文은 1930년대에 독특한 사상과 미적 감각으로 소설 작품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지금에 이르러 중국현대문학사에서 탁월한 예술성과 상징성을 지닌 작품을 쓴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⁴⁾ 그는 당시 中國의 일반적인 작가와는 달리 작품에 農村背景을 중시하여 소설 도처에 전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그가 태어나 살았던 農村의 순박하고 선량하며 삶의 활력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야만성을 지닌 ‘鄉下人’의 삶을 많이 그렸다. 沈從文은 비록 農村 출신이기는 하지만 젊은 시절에 이미 北京과 上海를 두루 거치면서 創作活動과 教師生活을 했기에 결코 ‘鄉下人’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의 作品에는 도시인의 意識과는 전혀 다른 면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深意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都市보다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더 가치 있고 인간답다고 보는 文化的 原始主義에 뿌리를 두어, 인간정서의 원천에서 근원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작품 속에 표현된 그의 深意는 당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작가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었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과거 現代文學時期 沈從文에 대한 평가는 단지 多産作家일 뿐,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純粹文學的인 경향을 띄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農村現實을 단순히 描寫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農村이

1) 聞一多 〈女神之地方色彩〉, 《聞一多選集》, 開明書店, 1951. 96쪽.

2) 향하인은 사전상의 의미로 ‘촌뜨기’ 혹은 ‘촌놈’이라는 말로 풀이 된다. 아울러 본 고에서의 ‘향하인’의 의미 역시 위의 개념과 상통된다. 그런데 본 고에서 향하인을 ‘촌뜨기’ 혹은 ‘촌놈’ 따위의 속어로 번역하여 쓰여지는 것이 논문의 용어 선택상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본 고에서는 향하인의 본 의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향하인’으로 한국어 번역 없이 사용한다.

3) 趙遼秋·曾達瑞 共著 《中國現代小說史》上冊, 북경: 중국인민대학출판사, 1984. 8-9쪽.

4) 《中國現代文學史教程》下冊, 산둥교육출판사, 1979. 229쪽.

라는 自然的 背景에서 삶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는 鄉下人의 人物形象을 통하여 작자 나름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려 하였다. 本 考에서는 이러한 鄉土意識의 形成을 究明하고자 한다.

II. 農村生活을 통한 鄉土意識 形成

沈從文의 '鄉下人'에 대한 意識은 그가 태어나 살았던 農村에서의 生活 體驗 속에서 醞釀된 듯 하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農村을 떠나 邊境地域이나 都市에서 生活하면서도 항상 農村世界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끼고 있었고, 또한 '鄉下人'의 우매하면서도 성실한, 투박하면서도 착한 성격에 대해 정감어린 감정을 갖고 있었기에 자신을 항상 '鄉下人'이라 간주하였다. 沈從文의 이러한 성향은 〈從文小說習作選〉에 잘 나타나 있다.

나와 너는 비록 한 都市 안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기회가 분명 있지만 그러나 사실대로 말한다면 너와 나는 본래 다른 길을 가고 있다. …… 나는 정말로 鄉下人이다. …… 鄉下人이란 원래 촌뜨기의 정서가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어 愛憎과 哀樂에 대해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이 있으니 都市人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我和你雖然共同住一個都市裏, 有時居然還有機會同在一節火車上旅行, 一張卓子上吃飯, 可是說眞話, 你我原是兩路人。……我實在是個鄉下人。……鄉下人照例有根深蒂固永遠是鄉巴佬的性情, 愛憎和哀樂自有它獨特的式樣, 與城市中人鼓截然不同。)

이곳에서는 그가 비록 都市에서 都市人과 같이 生活하면서도 都市人과는 다른 '鄉下人'의인 정서를 간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沈從文이 이와 같은 鄉土意識을 왜 갖게 되었고, 이 意識은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沈從文은 農村 生活의 어떠한 生活 體驗을 통해 鄉土意識을 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 다음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沈從文的 鄉土意識은 어린 시절 農村生活 속에서 대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農村의 수려한 경치와 선명한 자연의 소리에 대해 아름다운 인상을 갖고 있었다. 沈從文이 農村 環境에 대해 이런 인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農村의 자유스런 환경에서 여유롭게 뛰어놀면서 얻은 많은 경험 덕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사촌형의 꼬임으로 千方百計로 수업을 결석하고 아름다운 農村世界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유롭게 보냈다. 그의 어린 시절 이러한 모습은 〈從文自傳〉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의 집 도라지 정원에 가서 놀기 시작하더니, 교외 산에서 놀거나, 여러 아이들 무리에 가서 놀기도 하고, 강변에서 놀기도 하였다.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어, 그 거짓말로 집에 변명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학교에 변명하여, 그는 나를 자신과 함께 여러 곳을 뛰어다니게 유인했다.(他開始帶我到他家中桔柚園中去玩, 到城外山上去玩, 到各種野孩子堆裏去玩, 到水邊去玩, 他教我說謊, 用一種謊話對付家中, 又用一種謊話對付學塾, 引誘我跟他各處跑去。5)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沈從文이 자연 속에서 뛰어 놀 수 있었던 것은 수업을 빼먹거나 가족들에게 변명을 하기위해 사촌형으로부터 배운 거짓말 덕분이었다. 그때 배운 숙련된 거짓말은 그의 소설 속에서 최초의 표현형식이 되었다. 沈從文은 자신이 가장 먼저 배우고 동시에 써 먹은 것은 바로 여러 경험에 근거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평하였다.⁶⁾

沈從文이 어린 시절 배운 숙련된 거짓말을 소설 창작의 기초로 삼았다면, 그의 창작 소재는 바로 農村 世界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얻은 여러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 후 일생동안 그에게 상상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대낮에는 대단히 자유스러워 도처에 가서 보고, 도처에 가서 듣고, 또한 도처에 가서 악취 냄새를 맡기도 하였다. 죽은 뱀의 냄새, 썩은 풀의 냄새, 웅기터 토굴이 비에 젖은 후 풍기는 냄새, 내가 말로 표현하려 하면 비록 당시에는 언어로 형용할 방법이 없었지만 내가 분별하려하면 오히려 매우 용이하였다. 박쥐의 소리, 한

5) 《沈從文全集》第11卷, 〈從文自傳〉109쪽.

6) 위의 책, 〈從文自傳〉109쪽.

마리 황소가 도살될 때 칼이 그의 목을 찌르는 순간 지르는 소리, 논두렁 구멍 속에 숨어 있는 뱀의 울음소리, 어둠 속에서 물고기가 수면에서 팔딱거리는 소리, 모두가 귓가에 스칠 때 그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밤에는 많은 괴상아릇한 꿈을 꾸곤 한다. 자주 하늘로 날아가 황금빛이 찬란한 곳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깬다. 이러한 꿈은 이십 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줄곧 자주 나를 한밤중에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며 나를 그 “과거”의 공허 속으로 데려가거나, 나를 환상의 우주 속으로 데리고 간다。(白日裏太野，各處去看，各處去聽，還各處去嗅聞，死蛇的氣味，腐草的氣味，屠戶身上的氣味，燒碗處土窯被雨淋以後放出的氣味，要我說來雖當時無法用言語去形容，要我辨別却十分容易。蝙蝠的聲音，一只黃牛當屠戶把刀刺進它喉中時嘆息的聲音，藏在田贈土穴中大黃喉蛇的鳴聲，黑暗中魚在木面撥刺的微聲，全因到耳邊時分量不同，我也說得那麼清清楚楚。因此回到家裏時，夜間我便做出無數希奇古怪的夢。經常是夢向天上飛去，一直到金光閃爍中，終於大叫而醒。這些夢直到將近二十年後的如今，還常常使我在半夜裏無法安眠，既把我帶回到那個“過去”的空虛裏去，也把我帶往空幻的宇宙裏去。7)

沈從文은 어린 시절 수업에 결석하여 별을 받을 때 더욱 더 환상의 세계로 비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매 맞은 후에 항상 공자의 초상 앞에서 손에 향을 들고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줄곧 서 있으면서 자신 나름의 상상의 세계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별 받을 때를 회고하면서 〈從文自傳〉에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방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별 받으면서, 한편으로 여러 일들을 기억해낸다. 상상은 마치 한 쌍의 날개가 달린 듯이 경험에 의지하여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러 사물 위로 날아간다. 날씨가 춥고 따뜻함에 따라, 강물 속의 쏘가리가 낚시에 걸려 물 밖에 나온 뒤 가시를 치켜세우는 모습을 생각해 내거나, 하늘 가득 나는 연을 생각해 내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산에서 노래하는 피꼬리를 생각해 내기도 하며, 나무 위에 주렁주렁 달린 과일을 생각해 내기도 한다。(我一面被處罰在房中的一隅，一面便記看各種事情，想像恰如生了一對翅膀，憑經驗飛到各種動人的事物上去，按照天氣寒暖，想到河中的鰱魚被釣起離木以後拔刺的情形，想到天上飛滿風箏的情形，想到空山中歌呼的黃鸝，想到樹木上累累的果

7) 위의 책, 〈從文自傳〉117-118쪽.

實。8)

沈從文的 앞에 펼쳐진 모든 사물은 그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기도 한다. 이런 호기심은 그의 예술적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 자유롭고도 순박한 農村生活에서 대자연과 접촉하여 온양된 '鄉下人'의 세계가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그는 어떠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었는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왜 노새를 부릴 때 눈을 가려야 하는가? 왜 칼은 빨강게 달구어 졌을 때 소금물에 담가야 단단해 지는가? 왜 불상을 조각하는데 나무로 인물 형태를 만들고, 불인 금딱지는 그렇게 얇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만드는가? 왜 장인은 동판위에 둥근 눈을 뚫고, 꽃을 새길 때는 가지런한가? 이런 이상한 일은 참으로 너무 많다. (爲什麼騾子推磨時得把眼睛遮上? 爲什麼刀得燒紅時在鹽水裏一淬方能堅硬? 爲什麼雕佛像的會把木頭雕成人形, 所貼的金那麼薄又用什麼方法作成? 爲什麼小銅匠會在一塊銅板上鑽一個圓眼, 刻花時整整齊齊? 這些古怪事情實在太多了。9)

이러한 沈從文의 문학 창작활동에 기초가 되었던 상상력과 호기심은 대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골 生活의 많은 경험을 통해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沈從文의 鄉土意識 形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沈從文은 '鄉下人'들의 언어운용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農村生活이 그의 창작예술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뱃사람들의 노래 소리에 대해 〈從文自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거칠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신 김치와 냄새나는 고기를 먹으며 지껄이는 입에서 흥겹게 노래 부르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아름답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這些租人野人, 在那吃酸菜臭牛肉說野話的口中, 高興唱起歌來時, 所唱的又正是美麗人的歌?10)

8) 위의 책, 〈從文自傳〉 111쪽.

9) 위의 책, 〈從文自傳〉 117쪽.

10) 위의 책, 제9권 〈湘行散記〉 272쪽.

또한 그는 자신의 문장 풍격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를 자신이 뱃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뱃사람들의 노래 소리는 불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서 그들이 일할 때 창작해 낸 흥겨운 시가이다. 아울러 그는 친구 曾氏의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해 〈湘行散記〉에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나는 아직 이 친구 보다 중국 격언의 쓰임을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학자도 만나 보지 못했다. 그의 말은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설사 말이 거칠긴 하지만 각기 출처가 없는 것이 없으며 묘미가 뛰어나고 장중한 해학이 섞여 말을 하면 바로 문장이 된다. 그의 그 언어비유의 풍부함은 정말 큰 강의 흐르는 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라. (我還不會遇見過什麼學者，比這個朋友更能明白中國格言語的用處。他說話全是活的，即便是譚話野話，也莫不各自有出處，而且妙趣百出，庄諧雜陳，言之成章。他那言語比喻豐富處，真像是大河流水，永無窮盡。11))

또한 이 친구는 사람들의 인물 생김생김의 묘사에도 매우 능숙했는데, 沈從文은 이 점에 대해서도 〈從文自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여인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듯하지만, 그는 단지 몇 마디의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해학적인 언어로 묘사해 낸다. 나는 후에 많은 소설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묘사한 적이 없는 젊은 여인의 윤곽을 묘사했는데, 여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곡선을 빼먹지 않고 옹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이 친구의 서술에 힘입은 것이다. (從他口中說出的每一個女子，都彷彿各有一份不同的個性，他却只用幾句最得體最風趣的言語描出。我到後來寫過許多小說，描寫到某種不爲人所齒及的年輕女子的輪廓，不致于失去她當然的點線，說得對，說得準確，就多數得力于這朋友的敘述。12))

沈從文的 農村生活은 그의 언어운용에 영향을 준 것 이외에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성격의 선명함과, 직접 그의 소설에서 투영될 수 있는 진실한 '鄉下人'의 形象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沈從文의 '鄉下人'에 대한 作家 나름의 意識形成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11) 위의 책, 제9권 〈湘行散記〉 280쪽.

12) 위의 책, 〈從文自傳〉 190쪽.

沈從文은 과거 자신이 알고 지냈던 여러 인물을 소설에 등장시켜 소설의 인물로 재창조 시켰다. 가장 두드러진 한 예로 그는 〈從文自傳〉에 기록되어 있는 실재사건을, 후에 재가공하여 두 편의 독립된 소설인 〈醫生〉·〈三個男子和一個女人〉을 썼다. 〈從文自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은 沅河 강변의 '榆樹灣'이라 불리는 작은 나루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곳의 어느 상회 회장의 딸이 병사했는데 그녀가 매장되던 그날 밤에 그녀의 시체는 같은 동네에 사는 두부 파는 젊은이에게 파헤쳐졌는데, 그는 그 여자의 시체를 산속 동굴로 안고 가서 3일을 보낸 뒤 그녀를 묘에 다시 갖다 놓았으나, 이 일이 발각된 후 관가에 잡혀가 심문을 받은 후 사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이다. 沈從文은 당시 이 젊은이를 관가에 가서 본 뒤의 심정을 〈從文自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도 그의 정신은 매우 또렷하여, 조금도 흐리멍덩하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욕해대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하게 자기의 다친 다리의 한 쪽 복사뼈를 주시했다. 내가 그에게 “다리는 누구에게 맞아 다친 거야?”라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대단히 우스운 일이라도 생각난 듯이 잠시 미소 짓다가 “그날은 비가 왔는데 나는 그녀를 장사 지냈소, 아마 트면 관 속으로 굴러 떨어질 뻔 했죠.”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또 그에게 “너는 왜 그런 일을 했지?”라고 물으니, 그는 여전히 미소 지으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마치 내가 어린애여서 어떤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듯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라고 또 나지막하게 중얼중얼 말했다. 다른 사병이 “미친 놈, 널 죽여 버릴 거야, 너 두렵지?”라고 말하자, 그는 “그게 무슨 두려운 것이라고. 너는 죽는 것이 두렵나?”라고 말했다. 그 사병은 반문을 받은 후에 약간은 부끄러운 듯 하다가 곧 큰소리로 “미친 놈, 너는 죽는 것이 안 두렵나?, 조금 후면 네 놈 머리는 잘릴 텐데!”라고 그에게 소리쳤다. 그 남자는 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미소는 마치 “누가 미친놈인지 모르겠군.”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이 미소를 기억하는데, 십여 년 동안 내 인상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뚜렷이 남아있었다.(臨刑稍前一時，他頭腦還清清楚楚，毫不胡塗，也不嚷吃嚷喝也不亂罵，只沈默的注意到自己一只受傷腳踝。我問他：“腸被誰打傷的？”他把頭搖搖，彷彿記起一件極可笑的事情，微笑了一會，輕輕的說：“那天落雨，我送她回去，我也差一點滾到棺材裏去了。”我又問他：“爲什麼你做這件事？”他依然微笑，向我望了一眼，好像當我是個小孩子，不會明白什麼是愛的神氣，不理會我。但過了一會，又自言自語輕輕的說：“美得很，美得很。”另一個兵士就說：“瘋子，要殺你了，你怕不怕？”)

他就說：“這有什麼可怕。你怕死嗎？”那兵士被反問後有點害羞了，就大聲恐嚇他說：“癲狗咬的，你不怕死嗎？”等一會兒就要殺你這癲子的頭！”那男子于是又柔弱地笑笑，便不做聲了。那微笑好像在說：“不知誰是癲子。”我記得這個微笑，十餘年來在我印象中還異常明朗。(13)

1931년 沈從文은 이 사건을 근거로 〈醫生〉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이 작품은 허구의 인물인 의사를 통한 서술과 전통적인 妖怪 故事가 작품 속에 흐르는 기조가 된다. 몇 년 후 그는 다시 〈三個男子和一個女子〉라는 改作本을 내었다. 당시 그는 〈從文自傳〉에 실은 실제 사건에 대해 약간의 변화를 주어 허구의 성분을 많이 가미했으며, 또한 실제의 내용과도 많이 결합시켰다. 두부 파는 인물에 대해 충분히 서술을 함과 아울러 새로운 두 명의 배역을 끌어 들였다. 한 명은 군대의 하사로 이야기의 서술자이며, 다른 한 명은 군대 하사의 젊은 친구로 절름발이 나팔수이다. 방금 인용한 단락의 서술에서 ‘鄉下人’으로 칭할 수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 명은 두부 파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얼굴에 오히려 평정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데, 그는 그 미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조차도 포기한 인물이다. 다른 한 명은 큰 소리로 남을 헐박하는 사병이다. 그는 앵정하고 무정한 가면으로 자신의 과민한 표정을 은폐하고 있다. 이곳에서 沈從文이 農村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 펼쳐버릴 수 없이 함께 존재한다. 〈三個男子和一個女子〉에서는 두 유형의 ‘鄉下人’이 등장한다. 沈從文은 〈三個男子和一個女子〉에서 두 유형의 ‘鄉下人’이 아름다움에 대해 바라보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왜 여전히 가소롭소? 당신 촌놈들은 아름다움이 도무지 뭔지를 모르고 있소! 당신들은 일생 동안 늙어빠진 아줌마, 암돼지, 물소나 좋아 하지. 이걸 당신들이 미인을 모르고,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오.(爲什麼還好笑? 你們鄉下人。完全不懂美! 你們一生歡喜大乃大臀的婦人, 喜歡母猪, 喜歡水牛。這因爲你們不知道美人, 不知道好看的东西戶。(14))

소설에 등장하는 두 유형의 ‘鄉下人’은 그들 나름의 다른 방법으로 사랑과 아름다움

13) 위의 책, 〈從文自傳〉 160-161쪽.

14) 위의 책, 제6권 小說 〈三個男子和一個女子〉 35쪽.

다음은 느낀다. 그러나 두부가게 주인은 여인에 대한 연민 때문에 죽어갔고, 두 명의 사병은 이야기의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나약한 희생자로 남는다. 소설에 표현된 이러한 인물들의 ‘鄉下人’의 성격은 바로 作家의 가슴 속에 내재된 ‘鄉下人’에 대한 作家 나름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러한 作家意識을 기초로 沈從文은 여러 작품 속에서 자신이 태어나 살았던 農村을 이상화시켜 그곳에서의 農村 사병을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라 여겼고, ‘鄉下人’을 용감하고 인분 자족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잘 모시며, 예의를 잘 지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가 태어나 生活했던 農村은 나름대로 암울한 면이 있었으니, 당시 湘西地區 鳳凰縣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실패한 共和反淸革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세기 동안의 만청의 폭정 및 이 폭정으로 야기된 반항으로 모든 도로와 보루는 붉게 물들었다.(兩世紀來滿淸的暴政, 以及這暴政而引起的反抗。血染紅了每一條官路和每一個碉堡。15))

沈從文은 그의 生活 주변에서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유혈사태를 목격했다. 봉기가 실패한 그날 오전, 그의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가서 衙門 앞에 산재한 4백여 개의 잘라진 머리와 귀를 보여주었다. 이후 매일 백여 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성 밖으로 끌려가 참수 당했다. 이런 일은 약 한 달간 계속되다가 마침내 영향력 있는 지방의 유지가 상급당국에 도살을 중지해줄 것을 건의한 뒤, 잡혔던 사람들은 곤장으로 처리되었다. 어린 沈從文과 그의 친구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살인 장면과 수많은 시체를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가 作家가 된 후에 자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일로 인해 고난을 겪은 ‘鄉下人’에 대한 그의 동정심은 〈從文自傳〉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런 鄉下人의 모습을 보자, 눈을 감고 손안의 대 끈 한 쌍을 힘껏 던져 버린다. 어떤 이는 이미 석방이 되었을 때도 눈을 뜨지 못한다. 또한 비록 다 죽어가더라도 집의 아이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낙심하고 신을 원망하는 표정을 보노라면, 나는 정말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막 “人生”을 알았을 때 내가

15) 위의 책, 〈從文自傳〉 101쪽.

안 것은 본래 바로 이런 일이었다.(看那些鄉下人, 如何閉了眼睛把手中一副竹筴用力拋去, 有些人到已應開釋的時候還不敢睜開眼睛。又看看些雖應死去, 還想念到家中小孩與小牛豬羊的, 那彬頹喪那彬對神埋怨的神情, 眞使我永遠忘不了。我剛好知道的原來就是這些事情。16)

이것은 바로 沈從文의 소설 속에서 출현하는 ‘鄉下人’의 다른 면이다. 이들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항상 고난을 받는 희생양으로서, 어느 때는 일시적으로 어느 때는 초연히 어느 때는 순종적으로 자신들의 숙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은 시종 일관 순박한 천성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역량은 바로 현실生活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미련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沈從文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많은 사실에 대해 인류가 만들어 낸 어찌할 수 없는 참사로 간주하면서 수용은 했지만, 다른 ‘鄉下人’처럼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심오한 감정 속에서 나오는 문학가의 초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從文自傳〉에서 엿볼 수 있다.

나는 그다지 윤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인생에 접근 했을 때 나는 영원히 예술가의 감정이었지, 절대 도덕군자의 감정은 아니었다.(我不大能領會倫理的美, 接近人生時我永遠是個藝術家的感情, 却絕不是所謂道德君子的感情。17)

또한 그는 〈從文自傳〉에서 農村生活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묘사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은 農村사람들의 도덕성이 어떠했든지 그로 하여금 영원히 都市人과는 융합될 수 없는 ‘鄉下人’으로 간주토록 만들었다.

이 경험은 내 마음 속에 남겨져 있어, 나를 영원히 ‘子曰’을 읽는 都市人의 애증 감각과는 일치할 수 없는 生活을 하도록 하였다. 거기서부터, 나는 보통사람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았고 보통사람이 들어 넘길 수 없는 외침을 들었으며, 보통사람이 맡아낼 수 없는 냄새를 맡았다. 이는 나로 하여금

16) 위의 책, 〈從文自傳〉 126쪽.

17) 위의 책, 〈從文自傳〉 179쪽.

都市人이 협소한 生活에서 만들어 낸 사람의 선악 관념에 대해, 약간의 흥미도 느끼지 못하여, 일단 都市에 가서 生活을 하기만 하면 우울함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 인간이 아닌 듯한 감정이 되었다.(這一分經驗在我心上有了分量, 使我活下來永遠不能同讀<子曰>的城市中人愛憎感覺一致了。從那裏……我看了些平常人不看過的一些蠢事, 聽了些平常人不聽過的喊聲, 且嗅了些平常人不嗅過的氣味; 使我對於城市中人在狹窄的生活裏產生的作人善惡觀念, 不能引起多少興味, 一到城市中來生活, 弄得憂郁強執不像一個“人”的感情了。18)

沈從文的 ‘鄉下人’에 대한 意識은 農村에서의 生活 體驗 속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러한 意識은 항상 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都市에서 生活하면서도 農村世界에 대해 깊은 향수를 느끼고 있었고, ‘鄉下人’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沈從文的 ‘鄉下人’에 대한 意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어린 시절 農村 사병을 보고 느끼는 친밀한 감정과 자신이 직접 사병으로서 生活하면서 體驗한 수많은 일을 들 수 있다. 그는 귀주 사천경계의 호남 서부에 위치한 아주 작은 都市인 상서 봉황현에서 태어났다. 당시에 몇 몇 군부대는 이 지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곳에 주둔하여 묘족 잔류 부락의 군사초소로 삼고 있었으며, 주둔 군인의 숫자도 모두 약 6천 여 명으로 그 지역 주민 인구보다 천 명 정도 많은 숫자였다. 沈從文의 가정은 비교적 부유하여 조부가 이미 지방유지로서 꽤 높은 계급의 군인이었고, 그의 부친도 계급이 상교(대령과 중령 사이의 계급)나 되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장하면서도 그 당시의 사병들에 대해 정감어린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감정은 〈從文自傳〉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곳의 군인들이 소로 베어 죽이는 것은 별로 기이한 일은 아니지만, 암살하는 것은 오히려 허용되지 않았다. 때리며 싸우기 좋아하는 인물은 군대 안의 사람에게도 있고, 가로회(청조 때 조직된 비밀결사단) 속의 막둥이들에게도 있으며, 불평을 잘 하는 건달들에게도 있다. 이 지역에 다른 무리는 성격이 활달하며, 겸손할 줄 알며, 친구를 위해 원수를 갚고, 의를 존중하여 베풀기를 좋아하였으며, 또한 매우 효순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훈도되어 민국 5년 이후에 점점

18) 위의 책, 〈從文自傳〉 162쪽.

없어졌다.(本地軍人互相砍殺雖不出奇,但行刺暗殺却不作興,這類善于毆頭的人物,有軍營中人物,有哥老會中老麼,有好打抱不平的閑漢,在當地男另成一幫,豁達大度,謙卑接物,爲友報仇愛義好施,且多非常孝順,但這類人物爲時代所陶冶,到民國五年以後也就漸漸消失了。19)

沈從文은 청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軍隊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소설에는 農村 士兵의 形象이 자주 등장했고, 農村 사병에 대한 그의 감정 묘사는 '鄉下人' 形象의 구체적 표현이 되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느낀 農村 士兵에 대한 존경심을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군 生活 속에서 잔혹하고 무정한 야만적 행동을 자주 목격했다 할지라도 사병에 대한 친밀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我的教育〉이라는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군대에서 우리들은 정말로 서로 아껴주어 구타당하면 대신 약을 찾아주고, 놀음에서 돈을 잃으면 돈을 빌려주어 본진을 찾게 해주고, 술이 있으면 모두 나누어 먹고, 일이 생기면 모두들 먼저 나서려고 하였다.(在一隊中我們真是很關愛的,被打了就代爲找藥,輪光了就借錢振本,有酒全是大家平分,有事情也是大家爭去做。20)

그는 군에서 제대하여 作家 겸 대학교수가 된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자신을 農村 환경 속의 사병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는 〈從文自傳〉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비록 이미 학자가 된 듯하나, 사실 모든 정신을 오히려 사병에 더욱 가깝기에 그들 곁에 갔을 때 우리가 담론할 수 있는 문제는 실제 내가 한 학생 곁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말보다 더욱 많다. 지금 나는 지위가 낮은 어떠한 사람과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희망도 대부분 나처럼 實生活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학교수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책에서 배운 지식을 말하지 않으면 신문에서 얻은 그의 얼마 안 되는 감상을 말할 뿐이니, 한 사람의 생명의 구성에 있어서는 결국 무엇인가가 결핍된 것 같아, 나눌 수 있는 의견 역시 매우 적다.(我雖然已經好像一個讀書人了,可是事

19) 위의 책, 〈從文自傳〉 119쪽.

20) 〈我的教育〉, 《新月》月刊 제2권 제6기, 1929. 9.

實上一切精神却更近于一個兵士，到他們身邊時，我們談到的問題，實在比我到一個學生身邊時可談的更多，就現在說來，我同任何一個下等人就似乎有很多方面的話可談，他們那點感想，那點希望，也大多數同我一樑，皆從實生活取證來的。可是若同一個大學教授談話，他除了說說從書本上學來的那一套心得以外，就是從報誌上得來的他那一分感想，對於一個人生命的構成，總似乎缺少一點什麼似的，可交換的意見，也就很少了。(21)

沈從文的 이러한 農村 사병에 대한 친밀하고, 존경어린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던 까닭은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했던 農村 사병에 대한 인상이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고, 또한 자신이 직접 군 생활을 통해 느낀 農村 사병에 대한 친밀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沈從文이 느낀 農村 사병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그의 '鄉下人'에 대한 意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沈從文이 대자연 속에서의 生活에서 얻어진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끊임없는 상상력이나, 그가 '鄉下人'들의 투박하면서도 솔직한 언어 운용을 보고, 듣고, 느낀 감정이나, 암울한 세계 속에서 고통받는 '鄉下人'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이나, 農村 사병에 대해 느끼는 친밀한 감정 등은 沈從文의 '鄉下人'에 대한 意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그는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소설 창작에 있어서 독특한 '鄉下人' 人物形象을 잘 표현하였다.

Ⅲ. 都市環境을 통한 鄉土意識 追求

沈從文의 '鄉下人'에 대한 意識 형성은 農村 生活에서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都市 生活의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형성·발전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의 鄉土意識의 형성추구와 그 양상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다른 生活經驗, 즉 시민, 作家와 教師로서의 都市人的 生活體驗을 살펴보아야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21) 《沈從文全集》第11卷, 〈從文自傳〉186쪽.

沈從文은 救國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26세에 공부를 하기 위해 북경으로 갔으나, 그곳에서의 生活은 첫 경험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과거 農村生活의 향수를 자극하였고, 배고픔과 한기만 느껴지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는 〈從現實學習〉에서 북경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서운 겨울 날씨 때문에 겪은 당시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먼저 그 작은 아파트의 축축하고 곰팡이 낀 방과 영하 12도의 추위 속에서 난로 없이 겨울을 나는 인내력을 배웠다. 그 다음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희망을 잃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는, 도서관으로 가서 스스로 모색해 나가는 독해력을 배웠다.(先是在一個小公寓濕的房間，零下十二度的寒氣中，學習不用火爐過冬的耐寒力。再其次是從飢寒交迫無望無助狀況中，學習進圖書館自行摸索的閱讀力。22)

沈從文은 農村 환경 속에서 20여 년 동안을 대자연과 혹은 그 환경 속에서 순수하고 따뜻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鄉下人과 같이 살아왔기에 都市라는 생소한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처량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하려 부단히 노력하였고, 또한 자기 자신의 창작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意識을 견고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沈從文은 都市환경에서 물질적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都市人과의 不一致感, 그리고 都市人들의 냉정함과 중국통치계급에서 볼 수 있는 도덕과 이성의 타락에 대해 환멸을 느껴서 〈從現實學習〉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벼슬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일하는 것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作家라고 내걸고 각 곳에서 활동하며 종일 회의하느라 대충 먹는 것도 물론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머리 숙여 일하는 것은 더욱 사람을 필요로 한다. (做官固然得有人，作事還要人，掛個作家牌子，各處活動，終日開會吃點心，固然要人，低頭從事工作更要人。23)

22) 위의 책, 〈從現實學習〉 301-302쪽.

23) 위의 책, 〈從現實學習〉 306쪽.

바뀌 말해 沈從文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生活에 충실하고 정직한 '鄉下人'처럼 몸과 마음을 국가에 바칠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都市에서 허황되게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젊은이는 국가 발전에 필요치 않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沈從文은 都市生活의 부정적인 관념에 대해 〈從現實學習〉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눈이 예리하고 손이 민첩해야 하며, 이것도 저것도 눈감아줄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서로 욕했어도 오늘은 또 손을 잡고 환담을 나누어야 한다. 오늘 막 활발한 논의를 발표하여 모두 그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니 이미 관에 박은 점원 따위가 되어버린다. 역시 한편으로 무도장을 경영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 능숙 능란하며, 한편으로 녹색의 펜으로 연애시를 쓰고, 붉은 펜으로 혁명시를 쓸 수도 있다.(爲適應環境更需要眼尖手快, 以及能忽彼忽此。有昨日尙相互惡罵, 今日又握手言歡的。在今天剛發表雄赳赳的超越的議論, 大家正爲他安全担心, 隔一日却已成爲什麼老伙計的。也有一面兼管舞場經理, 賭場掌櫃, 十分在行, 一面還用綠色木筆寫戀愛詩, 紅色木筆寫革命詩的。24))

沈從文은 표리가 부동한 都市 환경에 대해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으며, 그럴수록 農村의 질박하고도 순수한 삶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鄉下人的 정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農村에서 태어나 살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鄉土意識을 고양시켰던 沈從文의 입장에서 본다면 都市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인성을 잃게 하는 환경이었다.

沈從文은 북경에서 상해로 옮겨갔을 때, 作家 겸 教師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그는 作家로서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生活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해 의미 있다고 여겼지만, 都市環境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졌다. 다음의 반자전체 소설인 〈燈〉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生活인가? 어느 날 교단에 올라가 얼마나 장중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동시에 얼마나 거짓되게 네모난 나무강단 위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쓸

24) 위의 책, 〈從現實學習〉 307쪽.

데없는 말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 저 책에서는 저렇게 쓰여 있다고 했던가. 한 차례 얘기하고 나면 스스로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점점 문제를 이미 중대한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무슨 소리를 듣고 갑자기 깨어나 다시 학생을 주의해보고 나서야 곧 본 학기가 끝나면 사각의 학사모를 쓸 몇 명의 모군이 이미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머리가 완전히 이 현상으로 어지러워진다. ……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원고와 새 책, 새 잡지로 가득 쌓여 있는 책상에 다가 앉아 매우 열심히 책상 한 귀퉁이에 공간을 만들어 학교에서 가져온 한 묶음의 원고를 놓고 한 줄 한 줄 살펴보다가, …… 나는 홀연히 작은 억울함을 느끼고, …… 지금 처한 세계는 여전히 나 자신이 익숙한 세계가 아니다. 都市는 살아가기도 피곤하고 살아있기도 피곤하니, 이 세계의 모든 것들과 떠나고 싶어지고, 다시 14조전의 세금 수납원으로 돌아가, 團防國(지방의 자치단체)에 앉아, 빗물이 모여 작은 연못이 되는 정원에서 청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금편축으로 索靖의 出師頌과 鍾繇 宣示表를 적어보고 싶다. (這算什麼生活? 一天爬上講臺去, 那麼莊嚴, 那麼不兒不兒戲, 也同時是那虛偽, 站在那小四方木臺子上, 談這個那個, 說一些廢話兌一些廢話謊話, 這本書上如此說, 那本書上又如此說. 說了一陣. 自己彷彿受了催眠, 漸漸覺得已經把問題引到嚴重方面去, 待聽到什麼聲音一響, 憬然有所覺悟, 再注意一下學生, 才明白原來有幾個快要在本期學期終了就戴方帽兒的學士某君, 已經伏在桌上打盹, 這一來, 頭緒完全爲這現象把它紛亂了. ……從學校返回家裏, 坐近滿是稿件和新書新雜誌的桌前, 很努力的把桌面習出一點空間, 放下從學校帶回來的一束文章, 一行一行的來過目……我忽然感到小小冤屈……現在所處的世界, 仍然不是自己所習慣的世界. 都會生活得厭倦, 生存得厭倦, 願意同這世界一切好處離開, 願意再去做十四吊錢的屠稅收捐員負, 坐到團防局, 聽爲兩木匯成小潭的院中青蛙叫嚷, 用奪金標筆寫索靖出師頌同鍾繇宣示表了。25)

이런 都市와 융합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의 창작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형과 함께 生活했는데, 어머니는 폐 결핵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그의 형도 병에 걸려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沈從文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못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스스로 형편없다고 느끼는 작품 몇 편을 계속 써 내려가서 3일 만에 소설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써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넉넉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25) 《沈從文全集》第4卷 小說〈燈〉, 27-28쪽.

그는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도에 들러 며칠을 쉬는 까닭에 약해진 건강상태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전쟁의 위험이 닥쳐 남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는 곤명에서 생활할 때, 북경이나 상해에 있을 때보다 農村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압력은 사회 구조를 흔트려 놓았다. 沈從文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즉 귀와 눈이 미치는 곳은 전쟁으로 조성된 법폐(국민당이 만든 지폐)의 공기가 침투하지 않은 바가 없다. 지방 고유의 후덕함과 질박함이 다수의 교양있는 가정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物質生活를 따라 생기는 유행이 오히려 사회표면을 장식한다.(所及, 無不爲戰較事所造成的法幣空氣所滲透。地方本來的厚重質朴還保留在多數有教養的家庭中, 隨物質活動來的時髦, 却裝站到社會表面。26)

沈從文은 農村과 都市를 두루 거침으로써, 사람들은 오직 農村에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들 자신이 되며, 만약 都市에서 산다면 生活는 부자연스럽게 되고, 都市의 불건전한 환경 때문에 生活의 무료함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만든다고 느끼게 되었다. 沈從文은 이런 都市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 때문에 자신의 '鄉下人'에 대한 意識을 계속 추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작품에서도 農村에서 生活하고 있는 건실한 '鄉下人'의 모습을 形象化하여 표현했으며, 자전과 반자전체 글에서 자신을 都市人과 다른 '鄉下人'이라고 분명하게 일컬고 있다.

IV. 맺음말

본 고에서는 沈從文 소설 가운데 '鄉下人'에 대한 작가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농촌제재소설과 자전체 산문을 통하여 작가의식 형성과정을 농촌생활과 도시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鄉土意識 形成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작자의 鄉土意識 形成은 어린 시절 농촌생활 속에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빠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배운 거짓말은 결과적으로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고, 상상 속의 호기심이 소설 창작의 기초가 되었다.

26) 위의 책, 〈從現實學習〉 312쪽.

이러한 호기심은 일반 '향하인'의 흥미와는 다른 것이지만 어린 시절의 상상 세계 속의 호기심은 미래에 소설 작가가 된 이후에도 작품 내용의 중요한 요소가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沈從文이 鄉土意識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인소가 되었다.

이 밖에 沈從文의 鄉土意識 形成은 農村에서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 이외에도 도시 환경을 이탈하여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갈망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도시 환경의 도덕과 이서의 타락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었다. 바꿔 말해서 그는 불건전한 도시 환경 때문에 생활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느끼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沈從文은 자신의 도시생활 경험을 통해 도시문명이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고 이기주의를 조성시켰다는 비판의식을 갖고, 자신의 작품에 원초적 인간성이 갖추어져 있는 '鄉下人'에 대한 작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參考文獻】

- 《沈從文文集》全12卷,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花城出版社, 1985.
 趙遯秋·曾達瑞 共著《中國現代小說史》上冊,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中國現代文學史教程》下冊, 山東教育出版社.
 黃修己《中國現代文學發展史》,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88.
 丁望《三一暉代作家評介》, 臺北: 時報文化出版版公司, 1978.
 張足先《中國現代作家評論》, 武漢: 武漢出版社, 1990.
 吳昌立《沈從文作品欣賞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上海: 廣西教育出版社, 1988.
 吳昌立《沈從文—建築人性神廟》,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1.

【中文提要】

沈從文是中國現代文學史上一位重要的作家, 也是一位多產作家。從1926年到1949年, 他發表了短篇小說·長篇小說·戲劇·詩歌·傳記·書信·評論

和寓言等各種文學作品50卷左右。

他主要是作為一位小說家而聞名於世間的。雖然他是一位受到文壇的注目之作家，但是因為他在根本上對政治缺之興趣，又始終堅持把他的創作限定在個人生活經驗的範圍內。他雖然是作為一個作家和教授生活在都市上的，却都仍然從他的鄉村出身中到了他對都市世界感到冷漠的起因和沈從文的鄉土意識，不但使他在經常遭遇的困難的政治和文學舞臺中到了自己的對鄉下人的深刻的認識，而且還給了他一個中心題材，圍線着這個中心題材，他構造起他自己的文學世界，充分他利用那些他早年在故鄉鄉村生活中發生的事件和那裏的人物，景物和聲音。此外在中國當時正經歷着的社會和政治混亂之中，這種鄉土意識還給了他一種能夠反駁他的批評者的特別的優勢地位。使他能夠在他的文章和小說中，按照他自己的獨特的作家意識來評價當時的潮流。鄉下人形象價值的哪些方面進入了沈從文的小說？沈從文的鄉土意識現代中國的歷史發展中具有哪些重要意識。

爲了了解沈從文是如何從他自己的經驗中形成他的作家意識，考察他在鄉村和都市生活環境上的生活經驗並且探討他的家意識形成樣相。

【主題語】

심중문, 작가의식, 향토의식, 향하인, 중국현대문학

沈從文, 作家意識, 鄉土意識, 鄉下人, 中國現代文學

Shen Cong Wen, writer consciousness, localconsciousness, a rustic, Chinese modern literature

투고일: 2016. 10. 15 / 심사일: 2016. 10. 25 ~ 11. 10 / 게재확정일: 2016. 11. 15